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돕기 나눔의 손길

나누우리, 2년째 후원...정기총회서는 새 이사장 해산 스님 선출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1월 10일 천안 청당동 버들마을 휴먼시아 주공APT회관에서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돕기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을 비롯한 30여 회원과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 50가구 10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 매우 반갑고 고맙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해 보다는 다소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나누우리가 사할린 영구귀국동포들에게 전달한 후원품은 백미 20kg 100포, 쌀 100개 등이다. 이에 앞선 구급 19일에는 나누우리와 태고종 총남교구가 공동으로 라면 50box와 생필품 50set을 전달했다.

이어 나누우리 회원들은 수년째 천안지

역 52가구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공양 배달봉사를 해 온 도광사(주지 지암)를 찾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백미 20kg 44포를 후원했다.

행사에 앞선 9일에는 나누우리 부이사장 해산 스님과 국내담당이사 청공 스님 등 나누우리 총남지부 회원들이 천안 버들마을 장애인 돕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백미 20kg 10포와 생필품 등이 천안 버들마을 장애인 5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나누우리는 10일 천안 도광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세입결산액은 1억125만 세출결산액은 7922만 원으로 결산 승인됐다.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7100만원이 의결됐다.

이어 201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서는 제2차 해외구호 지원사업 기획·시행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들을 위한 후원품을 나르고 있는 나누우리 회원 스님들

관한 건, 국내 소외계층 연중지원 프로그램 개발건, 각 사찰별 나누우리 봉사단 결성의 건,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건, 회원배가운동 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출 토의에서

는 이사장에 해산 스님(태고종 총남교구 총무원장), 부이사장에 송월 스님, 감사에 범도 스님, 봉사단장에 범륜사 신도회장이인선 불자를 선출했다.

조동제 기자 cetana@gmail.com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재가자들

“받기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

금산사 임진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금산사 분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보살행과 전북지역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1월 5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열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분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승환 전북북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불자 30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받는 사람의 행복보다 주는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훨씬 높으며 미래사회는 이타행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며 “배우고 나누어주는 이타행의 실천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정토 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의 잘

못이 크다. 정치인들과 각급 기관장들은 원만한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신년사에서 “신도조직을 재점검해 가족 법회 활성화, 청소년 포교사업, 복지사업, 군포교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밖에 “뇌목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는 가람수호와 대사회복지활동, 중무행정 등에서 모범을 보인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와 완주 안심사(주지 일원)가 우수사찰 표창을 받았다.

또 이수복(전주교도소 성불회) 감석춘(전북교도사단 사무국장) 정순례(108순례단 부단장)불자가 포교대상을 수상했으며 정창자(금산사 마야회총무) 정정자(금산사 법도회 부회장) 김정례(서교사 신도회부회장) 소정순(서교사 지장회장) 불자가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시민이라면 내장사 무료입장

내장산 무료입장 기념 걷기대회

2011년 정읍시민의 내장산 무료 입장을 결정한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가 이를 기념하는 걷기 대회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내장사와 정읍시, 정읍시 체육협의회와 불자들은 1월 7일 '내장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내장사를 출발해 원적암-백련암-일주문에 이르는 3.6km구간을 함께 걸으며 내장산의 빼어난 경관을 함께했다.

걷기대회에서는 정읍시농악단의 흥겨운 농악공연과 시민대표의 '내장산 사랑 다짐 결의'와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의 개법 선언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 내장사 지선 스님은 “내장산 정읍시민 무료개방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내장산을 지켜 세계 최고의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조선왕조실록> 보존회 복원과 우화정 개축 등 대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주민 내장산 무료 입장 허용에 따라 정읍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를 입증하는 시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풍 성수기때 많은 인파가 몰리는 10·11월은 제외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육군 논산훈련소 임진년 첫 수계법회 봉행

1월 8일, 2500 장병 '불자다운 삶' 다짐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장병수계법회를 1월 8일 봉행했다.

군중교구와 동학사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과 제천 무암사 황도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월공 스님은 30년 동안 육군 논산훈련소 장병들에게 계교와 간식, 기념품을 후원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옥분)를 지원해 왔다.

스님은 불교어머니회가 수십년을 변함없이 논산 훈련소 법당을 후원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불사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 오래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해 왔다. 월공 스님은 영선사 내에 불교어머니회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2008년부터 영선사 자체 포교기금과 매월 지장 철야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해 왔다.

황도 스님도 불교어머니회를 꾸준히 후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2500여 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한 군중특별교



군중특별교구장 자람 스님이 월공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구장 자람 스님은 법어를 통해 “건강하고 원만하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늘 부처님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마을공동체 형성 '팔 걷었다'

귀농운동본부 등과 협약 사할 임야와 농지 경작권 제공

예로부터 심층지의 하나로 불려온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가 귀농인들과 손잡고 지역순환공동체 확산에 나섰다.

마곡사는 1월 3일 전국귀농운동본부(상

임대표 정영수),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두레배움터(대표 박승욱)와 협약 맺고 '심층지 소농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귀농인들은 3305785.12m²(100만 평)규모의 마곡사 임야와 농지에서 가족소농 형태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작권은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

형태로 권리가 보장된다. 주기공간도 조합 출자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태순환형 휴집으로 공동농기주택을 짓고 살게 된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없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탈퇴하면 출자금 환금이 가능하다. 에너지생태건축협회를 통해 직접 배우면서 집을 짓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귀농분부는 소농학교 운영을 비롯해 각종 농사 교육과 귀농자의 정착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수행·복지·전법·포교도량 기반 확충 기대

복지재단, 불교회관 건립 추진 24교구총회, 예산안 심의 의결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주지 범만)는 교구총회의원, 실국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2일 법인 정기이사회와 교구총회를 개최하고 중무행정 계획을 확정했다.

같은 날, 선운사 종무소 세미나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이하 선운사 복지재단) 제1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식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득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사회에서는 정관 승인 및 임원 명부 확정, 법인재산목록 등 복지재단 설립보고에 이어 201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

려노후수행마을 운영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운사 복지재단은 이사장인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을 포함한 19명의 이사를 확정했고 4300만원 상당의 토지(개별공시지가)와 1억9300만원의 현금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현재 위탁운영중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과 승려노후수행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고창군이 새로 조성계획중인 뉴타운 지역 내 아동복지타운과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되면 수행과 복지, 전법과 포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구총회서는 불사 수행 교육 문화 복지 생태환경 포교 복지재단 설립보고 등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12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9기생, 대법사 제8기생, 출가학승 제8기생 모집요강

본 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58조에 의한 종단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9기 법사 과정 (출강통신) 2년 4학기

제8기 대법사 과정 (출강통신) 1년 2학기

제8기 출가학승 과정 (출강) 2년 4학기

-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 3시간)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중명) 3매
4. 동등자격소지사 특별 전형 입학

* 불교교육대학 제7기 과정모집 / 6개월 교재3권 입학원서

원서 접수 및 마감

• 2012년 1월 1일 ~ 2012년 2월 12일까지 • 면접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을 부여함.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속에서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정을 학습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며 사암, 포교원 개설운영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사물(목탁, 요령, 태경,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술,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및 상주권공, 대령, 관음,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을 지도합니다.
- 불교교육대학 등록금 10만원. 법사, 대법사, 출가학승 등록금 1학기 50만원. 교재비 1학기 30만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
전화 055)345-9393, 346-5115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혜법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정벽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도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십시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람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외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승, 선문철요, 정도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